

사무엘상 5-6장에 나타난 **מִלְחָמָה**의 의미

이창엽*

1. 들어가는 말

로스트(L. Rost)는 1926년에 쓴 박사 논문에서 ‘왕위 계승 이야기(삼하 9-20장, 왕상 1-2장)’는 하나의 독립된 문학 단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¹⁾ 그는 소위 ‘법궤 이야기(Ladeerzählung, Ark Narrative)(삼상 4:1-7:1; 삼하 6:1-20)’는 독립된 이야기로 왕위 계승 이야기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 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았다.²⁾ 그에 따르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어떤 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소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에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제의적인 전설을 작성했다고 본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로스트의 이론을 지지했고,³⁾ 그의 법궤 이야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일련의 학자들도 있었다.⁴⁾ 본 논문에서는 법궤 이야

* Univ. of Sheffield에서 박사 학위를 받음, 안양대학교 교수, 구약학, changyoplee@anyang.ac.kr.

- 1) Leonhard Rost,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nachfolge Davids* (Stuttgart: Kohlhammer, 1926). 이 책의 영역판은 M. D. Rutter와 D. M. Gunn에 의해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Sheffield: Almond Press, 1982)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Erik Eynikel, “The Relation Between the Eli Narratives (1 Sam. 1-4) and the Ark Narrative (1 Sam. 1-6; 2 Sam. 6:1-19)”, Johannes C. de Moor and Harry F. van Rooy, eds., *Past, Present, Future: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nd the Prophets* (Leiden; Boston: Brill, 2000), 88.
- 2) Leonhard Rost,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34; P. Kyle McCarter, *1 Samuel*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23.; Klaas Smelik, “Eyewitness Accounts in the Books of Samuel? A Reappraisal”, Klaas Smelik and Karolien Vermeulen, eds., *Approaches to Literary Readings of Ancient Jewish Writings* (Leiden; Boston: Brill, 2014), 78. 로스트가 구분한 법궤 이야기의 구절은 삼상 4:1b-18상, 19-21; 5:1-11하^a, 12; 6:1-3하^a, 4, 10-14, 16; 6:19-7:1; 삼하 6:1-15, 17-20상이다.
- 3) P. Kyle McCarter, *1 Samuel*, 23.; Erik Eynikel, “The Relation Between the Eli Narratives and the Ark Narrative”, 88.; Klaas Smelik, “Eyewitness Accounts”, 78.
- 4) 아이니켈은 포켈만, 스멜리크, 반 세티스, 반 데어 투른, 후트만 등의 학자 등의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을 소개한다(Erik Eynikel, “The Relation Between the Eli Narratives and the Ark Narrative”, 88-100). 스멜리크는 법궤 이야기는 과거 실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현실 참여적 문예적 창작(engaged literature)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Klaas Smelik, “Eyewitness Accounts”, 96-97).

기 전체에 대한 분석이나 본문의 최종 형태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6장 18절로 그 범위를 한정지어 블레셋 땅에서 유다 땅으로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과 연관된 이슈들만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호와와 법궤를 그 있던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⁶⁾ 이 질문에 대한 답을 BHS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단지 여호와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가 아닌 들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는 설명만 있다. 우리는 1절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6장에서 연이어 소개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와 법궤를 돌려보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칠십인역은 1절에 “땅이 쥐들을 토해내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땅이 쥐들을 토해 낸다’는 표현을 칠십인역 사무엘상 5:6에서는 ‘쥐들이 튀어 나왔다’고 설명한다.⁷⁾ 이처럼 칠십인역은 블레셋에 임한 여호와와 법궤의 심판에 쥐가 출현했다고 소개한다(칠십인역 삼상 5:6; 6:1).

쥐에 대한 언급 없이 한글성경 번역은 일관되게 히브리어 단어인 עפלים(오팔림)을 복수 형태인데 ‘독한 종기’로 번역한다. ‘독한 종기’가 사무엘상 5:6, 9, 12와 6:4, 5에 사용되고 있다. 칠십인역 5:3, 9, 12와 6:4에는 이 단어를 복수 형태로 자리(seat, residence)로 번역한다. 하지만 복수형 명사 עפלים의 의미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인 독한 종기나 칠십인역의 번역처럼 자리로 보아야 하는가? 필자는 일반적인 번역과 여러 사전들에서 제공하는 의미가 진정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지를 재고하여 본다. 칠십인역 사무엘상 5장에서 쥐에 대한 언급이 블레셋 도시인 아스돗, 에그론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합리적 해석인지 살피고, 칠십인역이 제시하는 본문이 히브리 본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인지 아니면 히브리 성경 본문보다 우위에 두어야 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복수형태인 명사 עפלים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후 새롭게 정의된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사무엘상 5-6장의 여러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5) 삼상 4-6장을 삼상 2장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읽는 밀러와 로버츠의 입장과는 달리 삼하 6장을 포함시키는 입장을 가진 캠프벨은 여호와와 법궤가 실로나 다른 장소가 아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두 본문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Antony F. Campbell, “Yahweh and the Ark: A Case Study in Narrative”, *JBL* 98 [1979], 33).

6) 칠십인역은 요술사들을 덧붙여 소개한다.

7) ‘쥐’라는 표현은 칠십인역 5:6과 6:1에 언급된다.

2. 복수 형태인 명사 עפלים에 대한 대안적 번역

우리는 우선 사무엘상 5-6장 읽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볼 수 있는 복수형 명사 עפלים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무엘상 5:6, 9, 12와 6:4, 5에 사용되고 있는 명사 עפלים의 의미를 기존의 ‘독한 종기’로 읽을 때는 아래와 같다.

וַיֵּךְ אֶתְכֶם בְּעַפְלִים אֶת־אֲשֶׁדּוּד וְאֶת־גְּבוּלֵי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삼상 5:6)

וַיֵּךְ אֶת־אֲנָשֵׁי הָעִיר מִקָּטָן וְעַד־גָּדוֹל וַיִּשְׁתַּחֲוּ לָהֶם עַפְלִים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삼상 5:9)

וְהָאֲנָשִׁים אֲשֶׁר לֹא־מָתוּ הָכּוּ בְּעַפְלִים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기로 치심을 당해(삼상 5:12)

명사 עפלי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5:9에 사용된 동사(שתר)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5:9 마지막 부분에 사용된 동사 שתר는 니팔 형태로 BHS 히브리 구약 본문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뜻은 알아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게 하다’ 혹은 ‘발병했다’고 일반적으로 번역한다.⁸⁾ 하지만, *BDB*와 *HALOT*은 성경 아람어 סתר와 연결지어 ‘파괴하다’의 의미도 가능하다고 소개한다.⁹⁾ 에스라 5:12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에서 사용된 סתר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를 동반한다.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는 목적어로 장소인 성전을 지칭한다. 만약 우리는 에스라 5:12에서 사용된 의미를 바탕으로 사무엘상 5:9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עפלים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면 명사 עפלים은 장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맥카터(P. Kyle McCarter)는 명사 עפלים의 원래 의미는 언덕들(hills, mounds)이라고 소개한다.¹⁰⁾ 명사 עפלים의 의미를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

8) R. K. Harrison, “שתר”,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ume 3 (Grand Rapids: Zondervan, 1997), 1295-1296.

9)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979, 1104.;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oston: Brill, 2001), 1363.

10) 맥카터의 견해를 따라서 추무라(David T. Tsumura)도 복수형 명사 עפלים의 원래 의미는 언덕들(hills, mounds)이라고 소개하지만 그는 이 단어는 완곡어법에 따라 언덕 모양과 같이 오목이 오른 종기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질병과 연관된 단어로 생각한다(P. Kyle McCarter, *1 Samuel*, 122-123; David Toshio Tsumura, *The First*

지로 분류되는 언덕들(mounds)'로 이해하고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 שָׁרַר의 의미를 '파괴하다'로 읽는다면, 사무엘상 5:9의 마지막 세 단어는 '언덕들에 위치한 거주지들이 그들에게는 파괴되었다'로 읽을 수 있게 된다. 동사 (שָׁרַר)의 의미를 '파괴하다'로 읽는 독법은 6절에 두 번째 동사로 나온 מַמְשֵׁךְ과 그 의미에서 유사하다. 그러면 복수형 명사 עפלים이 언급되는 6, 9, 12절을 각각 다음과 같이 기존의 번역과는 달리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더하사 그가 아스돗 사람들을 파괴하였고 그가 아스돗과 그 지역을, 언덕들에 위치한 거주지들에 있는 그들을 치셨다(삼상 5:6).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 여호와와 그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치셨고 그들에게 언덕들에 위치한 거주지들이 파괴되었다(삼상 5:9).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언덕들에 위치한 거주지들에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갔다(삼상 5:12).

6, 9, 12절에 언급되는 복수형 명사 עפלים은 모두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도시의 언덕에 위치한 거주지들이었고, 여호와와 그의 손이 이 거주지들을 파괴하였다. 언덕에 위치한 거주지들이 여호와와 그의 손에 의해 파괴되자 여호와와 그의 궤는 도시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역(residential areas)이 아닌 들에 머무르게 된다(삼상 6:1). 이러한 대안적 읽기는 사무엘상 5-6장이 성읍과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전체 흐름과 일치한다.¹¹⁾ 사무엘상 5장 본문 자체는 기존의 현대어 번역 성경들이 제시하듯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된 질병의 이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블레셋의 다섯 성읍은 각각 방백(통치자)이 다스렸던 도시였지만(삼상 6:4), 사무엘상 5:6, 9, 12를 독한 종기(독종)로 번역하는 것보다 거주지로 번역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도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아스돗에서 시작하여

Book of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7], 208).

11) 올드(A. Graeme Auld)는 명사 עפלים은 원래 어떻게 읽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케티브-케레의 규정에 따라 독종(מַמְשֵׁךְ)에 붙여진 모음을 사용해서 읽게 된다고 여긴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항문 장애와 연관된 의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부풀어 오른 부기는 엉덩이에 대한 완곡어구이고 그래서 칠십인역은 명사 עפלים을 자리로 번역했다고 본다(A. Graeme Auld, *I & II Samuel: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79.). 올드의 주석보다 20년 정도 전에 루스트는 명사 עפלים의 그리스어 단어(hedra)는 항문 주위의 전염병을 말하거나, 피해자들의 삶의 주거지이고, 삼상 5, 6장은 이 단어가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Johan Lust, "EDRA and the Philistine Plague", George J. Brooke and Barnabus Lindars, eds., *Septuagint, Scrolls and Cognate Writings* [Atlanta: Scholars Press, 1992], 590-591).

가드 그리고 에그론으로 도시를 옮겨 가며 여호와의 궤가 이동된다.¹²⁾ 여호와의 손이 다음 성읍에서도 여전히 무거워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 사무엘상 본문은 어떤 질병이 생겼는지를 묘사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본문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필자의 읽기는 칠십인역에서 언급되는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병한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칠십인역의 읽기와 병행할 수 없다. 칠십인역의 읽기는 사무엘상 5장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놓치게 만든다. 사무엘상 5장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블레셋의 성읍(עִיר)을 치시는 분이 여호와이다.¹³⁾ 여호와의 궤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의 거주지에 들어갔으나 여호와의 손이 그 도시 위에 엄중히 더하여지자 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인 언덕이 아닌 들에 일곱 달 동안 있게 되고, 마침내 그 있던 곳(למקומו, its place)으로 보내지게 된다(삼상 6:2).¹⁴⁾

사무엘상 5-6장의 관심은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사무엘서 저자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도 될 수 없고, 이어 옮겨진 가드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도시 에그론도 될 수 없고, 일곱 달 동안 있었던 들도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삼상 5:11; 6:2). 하지만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은 실로가 아니다. 여호와의 궤의 여행은 ‘오늘까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벰세메스에서 끝난다(삼상 6:18). 하지만 기랴여아림으로 옮겨져 20년이 지난 후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다(삼하 6장).¹⁵⁾

12) 맥카터는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에서 아래에 위치한 아스글론을 거쳐 남쪽의 가사에서 마침내 가드로 옮겨졌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도를 통해 보여준다(P. Kyle McCarter, *1 Samuel*, 101).

13) Leonhard Rost,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33을 참조하라.

14) 여호와의 궤(삼상 5:3, 4; 6:1, 8, 11, 15)는 이스라엘 신의 궤(삼상 5:7, 8, 10, 11; 6:3), 하나님의 궤(삼상 5:10[2번])로도 불린다. 여호와의 궤는 엘리의 이스라엘과 실로에서 떠나 다윗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결정된 뜻이다(Antony F. Campbell and Mark A. O'Brien, *Unfolding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rigins, Upgrades, Present Tex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226 참조). 여호와의 궤는 실로를 떠나 7개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 머물게 된다. 벰세메스를 지나 기랴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고(삼상 7:2), 예루살렘으로 결국 올라간다(삼하 6장). 추무라는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 도착한 이후 현재까지 블레셋 땅에 일곱 달 동안 머물렀다고 본다. 그는 ‘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지방’으로 번역한다(David T. Tsumura, *First Book of Samuel*, 213).

15) Antony F. Campbell, ‘Yahweh and the Ark’, 33. 캠프벨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결국 들어가지만, 베레스웃사의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무조건적으로 다윗과 그의 왕국과 수도를 지지한다고 보기보다는 여호와는 그의 주도권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Antony F. Campbell, *The Ark Narrative [1 Sam 4-6; 2 Sam 6]: A Form-Critical and Traditio-Historical Study* [Missoula: Scholars' Press, 1975], 250, 252). 벰세메스에서 생긴 큰

3. 쥐의 언급

BHS 사무엘상 본문은 6:4, 5에 와서야 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한편, 칠십인역은 4절에는 쥐를 언급하지 않고, 5절에 언급한다. 쥐는 BHS 사무엘상 6:4, 5에 언급되고, BHS 사무엘상 안에서 그 등장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본문을 좀 더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5:6과 6:1에 땅에서 쥐가 나왔다고 첨가한 것인지 아니면 칠십인역이 좀 더 원본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¹⁶⁾

BHS 사무엘상 5장은 쥐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6:4, 5에 언급되는 쥐들이라는 표현과 쥐들이 땅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이해하여 5장에서 언급된 첫 번째 도시인 아스돗에서 쥐가 나왔고, 쥐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이해하고 쥐에 대한 언급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역을 따르면 아스돗에 쥐가 출현하고 난 뒤 가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도시인 아스돗의 땅에서 나왔던 쥐들이 다시 출현하게 되었다고 칠십인역 사무엘상 6:1에 덧붙여 소개한다. 하지만 BHS 사무엘서는 쥐가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의 재난은 여호와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삼상 5:6, 7, 9, 11; 6:3, 5, 9).¹⁷⁾ 사무엘상 6장에 언급되는 쥐는 여호와께 바친 제물로서의 형상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실체로서의 살아 있는 쥐들을 말하지 않는다.¹⁸⁾

BHS 사무엘상 6:1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들에 있는 지 일곱 달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여호와의 궤가 머문 세 번째 도시인 에그론에서 블레셋 다섯 방백을 모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논의가 사무엘상 5:11에 소개된다. 이어 소개되는 사무엘상 6:2-9의 내용은 사무엘상 5:11의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술이다.¹⁹⁾ 이를

살룩은 여호와의 궤의 현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님을 보여준다(삼상 6:19; 4:10을 참조하라). 여호와의 행하심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mystery)이다(Antony F. Campbell, *1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3], 81, 83).

16) Johan Lust, "EDRA and the Philistine Plague", 572; 맥카터는 BHS와 LXX^B, LXX^L을 비교한 후 LXX^L이 원본에 가깝다고 본다(P. Kyle McCarter, *1 Samuel*, 119.).

17) P. Kyle McCarter, *1 Samuel*, 123; David T. Tsumura, *First Book of Samuel*, 209.

18) J. B. Geyer, "Mice and Rites in 1 Samuel V-Vi", *VT* 31 (1981), 296-297; David T. Tsumura, *First Book of Samuel*, 209.

19) 추무라는 블레셋 방백들은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들이 제사장과

확인시켜 주는 장치로 사무엘상 5:12는 완료형태의 동사가 등장한다. 사무엘서 저자가 완료 동사를 사용함으로 5장에서 6장으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11절에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처럼 저자는 짧게 소개된 사건을 사무엘상 6:2 이하 구절들이 블레셋 다섯 방백의 회의를 더욱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 사무엘상 5:12-6:1의 묘사는 사무엘상 5:11에 뒤이은 사건의 연속적 서술이 아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언덕들에 위치한 거주지들에서 치심을 당하였고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내용을 말하는 사무엘상 5:12의 내용은 블레셋의 다섯 방백을 부르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5:10에 소개된 사건과 연관된다. 여호와와 그의 궤가 일곱 달 동안 들에 머문 것은 10절과 11절 사이의 내용으로 여호와와 그의 궤가 들에 머문 기간으로 볼 수 있다. 11절에 언급된 블레셋 다섯 방백을 부르기 전에 이미 일곱 달이 지났다. 그러므로 칠십인역 사무엘상 6:1에 언급된 땅에서 쥐의 새로운 출현은 BHS 본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칠십인역 번역자들의 해석적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사무엘상 5-6장에 관하여 칠십인역이 좀 더 원본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사무엘상 5-6장의 저자는 6:2-9를 통해 5:11에 언급된 블레셋 방백들이 논의하는 사건을 더욱 자세히 소개한다. 블레셋 성읍인 에그론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올라갔지만 여호와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출 2:23-24와 비교). 블레셋 방백들은 그의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 문제를 해결한다.

4. 사무엘상 6장 2-9절의 논의

여호와와 그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보내기 위해 에그론에 모인 블레셋 다섯 방백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그들의 처방을 듣는다. 사무엘상 5-6장의 저자는 사무엘상 5:11에 짧게 소개된 내용을 6:2-9에 뒤이어 소개하는 문예적 서술 방법을 사용한다.

복술자들에게 문의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에 대해 블레셋 방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David T. Tsumura, *First Book of Samuel*, 214.).

4.1.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처방

셴커(Adrian Schenker)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곁에 두어 여호와 하나님께 신성모독이 되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주장한다. 셴커는 재앙이 임할 줄 몰랐지만 재앙으로 인해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것을 늦게 깨닫고, 속건예물로 보상하기로 한 자들이 다름 아닌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본다.²⁰⁾ 하지만 사무엘상 5장 본문은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들의 결정에 따라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기는 결정에 동의한 것을 밝힌다(삼상 5:8).²¹⁾ 그러므로 속건 제물로 보상하기로 한 사람들을 아스돗 사람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아스돗에 이어 가드와 에그론에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속함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 제의적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²²⁾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죄 사함받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경적 신앙과는 달리 여호와로부터 죄사함 받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 즉 병이 그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삼상 5:5). 즉 그들은 재앙이 멈추고, 병이 낫기 위해, 돈으로 보상하기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²³⁾ 또한 이스라엘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으로 만든 보상물(כֶּסֶף, compensation, reparation)을 드려 여호와와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20) Adrian Schenker, "Once Again, the Expiatory Sacrifices", *JBL* 116 (1997), 697.

21) 삼상 6:2에 언급된 블레셋 사람들은 4절에 언급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과 동일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에그론에 모였다(삼상 5:11). 이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를 결정한 자들이다(삼상 5:8). 그들은 심지어 여호와와 궤를 돌려보낼 때 벤세메스까지 이르러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간 자들이다(삼상 6:16).

22) 삼하 24장과 대상 21장이 소개하는, 회개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멈추는 이차적 목적보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린다. 여호와는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한다.

23)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대신하여 돈으로 대체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 숫양 대신 돈으로 대체하는 절차를 따라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숫양에 해당하는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레 5:15, 18절과 6:6은 참조)(Jacob Milgrom, *Studies in Cultic Theology and Terminology* [Leiden: Brill, 1983], 149-150.). 밀그롬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해 부지중에 범한 자가 짐승이 아니라 돈으로 대체하여 드림으로 속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나실인 서원을 했지만 자기의 몸을 더럽힌 자(민 6:12)와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한 자(레 19:20-22)도 책망을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돈으로 보상물을 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Jacob Milgrom, *Studies in Cultic Theology and Terminology*, 150. n.33.). 밀그롬의 해석을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면, 숫양 제사가 아닌 돈 즉 금보물로 대체하여 그들은 금보물로 속건제를 드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지나친 유추라 할 수 있다.

보낼 것을 제안한다.

아스돗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른 장소인 가드로 단 순히 옮기듯이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니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즉, 전문 종교인들은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포함하여 블레셋 다섯 성읍의 수효대로 금으로 만든 언덕 모양 즉 금 쥐 다섯 마리의 형상들을 보상품으로 드릴 것을 제안한다(삼상 6:4-5).²⁴⁾ 이 보상품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gift, 삼상 6:5),²⁵⁾ 봉헌물(votive offerings),²⁶⁾ 혹은 금보물(כְּלֵי־זָהָב, golden objects)이다(삼상 6:15).²⁷⁾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선물을 드림으로 그들에게 생긴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4.2.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처방

일반적으로 사무엘상 6:4, 5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금 언덕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를 합하면 전체 열 개의 금 형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7-18절의 내용 중 특히 18절에서 금 쥐들의 형상을 다섯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읽게 된다면 18절의 내용과 4, 5절은 서로 상치된다. 이에 대해 추무라(David T. Tsumura)는 사무엘상 6:18상반절은 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 덩어리(lump)는 금 쥐와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²⁸⁾ ‘금 쥐’라는 단어 앞에 덧붙여진 접속사 와우(waw)는 설명적 와우(waw explicativum) 또는 보충적 해설의 와우(epexegetical waw)로 접속사 와우의 뒤에 오는 쥐는 앞에 언급된 덩어리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²⁹⁾ 그러므로 사무엘상 6:4, 5, 11, 18에 각각 사용된 와우는 설명

24) 로스트는 금 쥐 다섯 마리가 은역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Leonhard Rost,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32).

25) Adrian Schenker, “Once Again, the Expiatory Sacrifices”, 698.

26) Ibid., 697.

27) 『개역개정』은 ‘금보물(כְּלֵי־זָהָב)’을 8절에서 ‘금으로 만든 물건들’로 번역한다.

28) David Toshio Tsumura, “List and Narrative in I Samuel 6, 17-18a in the Light of Ugaritic Economic Texts”, *ZAW* 113 (2001), 365-369; *First Book of Samuel*, 223-224. 왕하 23:5하에 하늘의 일월성신이 경배의 대상이었다고 언급된다. 이 구절 하반절은 “바알에게, 해에게 그리고 달에게 그리고 별 때에게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에게”로 직역할 수 있다. 바알이 언급된 다음 단어인 “해에게” 앞에 접속사 와우가 없다. 즉 “바알과 해에게”라고 적혀 있지 않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바알과 그 뒤에 언급되는 “해”가 바알과 대등한 병렬의 관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해가 언급된 다음 단어인 “달에게”로부터 시작하여 접속사 와우가 붙어 있다. 이 접속사 와우는 바알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적 와우이다. 그러므로 왕하 23:5하반절을 좀 더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바알, 즉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와 같게 된다.

적 와우로 아래와 같이 각 구절을 번역할 수 있다.³⁰⁾

- 금 언덕 다섯 그리고(즉) 금 쥐 다섯 마리(4절)
 너희의 언덕의 형상들 그리고(즉) 너희의 쥐의 형상들(5절)
 금 쥐들 그리고(즉) 그들의 독종의 형상들(11절)
 이것은 독종과(즉) 쥐(עכברים וטחרים)이다(17-18절)

이렇게 읽으면 15절에 언급된 상자에 담긴 금보물은 5개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쥐로 인해 재앙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5절에 언급된 쥐의 형상은 땅을 해롭게 하는 듯한 형상을 묘사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본문 자체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겪은 재앙의 실제적인 병을 옮긴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금 쥐의 형상은 단순히 모양을 묘사하는 데 강조점이 있지 쥐는 정결하지 않다든지(레 11:29), 레위기에서 제안하듯이 숫양을 속건 제사로 드리지 않았다는 주장(레 5:15)은 레위기의 본문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된다.³¹⁾ 사무엘상 6장 3절에 소개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제안은 그들의 제의 체계 안에서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언덕(עפלים)’, ‘쥐(עכברים)’, ‘독종(טחרים)’, ‘금보물(כלי־זהב)’

우리는 위에서 사무엘상 6:4, 5, 11에 각각 사용된 와우는 설명적 와우임을 살펴보았다. ‘언덕(עפלים)’, ‘쥐(עכברים)’, ‘독종(טחרים)’이란 단어들은 이 구절들에서 설명적 와우로 연결되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언덕(עפלים)’은 ‘쥐(עכברים)’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고(삼상 6:4, 5), ‘쥐(עכברים)’와 ‘독종(טחרים)’은 결국 동일한 것을 지칭한다(삼상 6:11). 사무엘상 6:4, 5에 나오는 ‘언덕과(즉) 쥐(עכברים ועפלים)’라는 표현은 11절의 ‘쥐와(즉) 독종(עכברים וטחרים)’과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이는 상자에 담은 5개의 금보물을 가리킨다(삼상 6:8). 한편 17절과 18절 두 절에 걸쳐 17절에 먼저 금 독

29) Cf. Wilhelm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154a N (b); David W. Baker, “Further Examples of the Waw Explicativum”, *VT* 30 (1980), 129-136; Patrick Wilton, “More Cases of Waw Explicativum”, *VT* 44 (1994), 125-128; 로널드 J. 윌리엄스,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김영옥 역, (서울: 그리심, 2012), 216; Ronald J. Williams, *Hebrew Syntax: An Outline*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71을 참조하라.

30) David T. Tsumura, “List and Narrative in I Samuel 6,17-18a”, 365.

31) 베젠은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한다(Robert D. Bergen, *1, 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1996], 100 참조).

종을 소개한 다음에 18절 첫 소절에 설명적 와우를 덧붙인 ‘취(ועכברים)’가 사용되고 있다. 17절에 사용된 많은 단어를 제거하여 독종과 취를 연결하면 ‘이것은 독종과(즉) 취(ועכברים וטחרים אלה)이다’라는 표현으로 축약해서 읽을 수 있다. 이는 또한 15절에 언급된 5개의 금보물을 지시한다. 비록 언덕과 독종은 설명적 와우로 연결해서 사무엘상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덕과 독종은 동일한 것을 지시함을 위의 설명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 언덕 다섯 그리고(즉) 금 취 다섯 마리(4절)
 너희의 언덕의 형상들 그리고(즉) 너희의 취의 형상들(5절)
 금으로 만든 물건들(8절)
 금 취들 그리고(즉) 그들의 독종의 형상들(11절)
 금보물(15절)
 이것은 독종과(즉) 취(ועכברים וטחרים אלה)이다(17-18절)
 언덕(עפלים)=독종(טחרים)

사무엘상 5, 6장의 저자는 언덕, 취, 독종, 보물(물건들) 서로 다른 네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이 단어들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읽기를 유도하고 있다. 본문의 저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언덕(עפלי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 만든 모형은 땅을 해롭게 하는 취(ועכברים)의 형상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언덕과 취를 설명적 와우로 연결하였다. 또한 독종(טחרים)이란 질병과 연관된 단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여 질병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음을 말하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인 금보물(כלי־זהב)을 여호와께 드리고자 했다(삼상 6:3). 그러므로 사무엘상 6:11, 17에 언급된 독종(טחרים)은 6:4, 5에 사용된 언덕(עפלים)과 설명적 와우로 연결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상 5-6장 안에서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어 군으로 볼 수 있다.³²⁾

32) 명사 עפלים이 신 28:27에 언급된다. 신 28:27상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 받지 못할 것이며”이다. 칠십인역은 종기 다음에 언급되는 “치질과(ובעפלים)”라는 단어에서 접속사를 없애고 이 단어를 장소로 이해한다. 이렇게 읽게 되면 “종기와 치질로(with the boils of Egypt, and with tumors [ESV 영역본])가 아니라 “자리에서 애굽의 종기로(with an Egyptian festering sore in the seats [NETS 칠십인역])”로 번역할 수 있게 된다(Johan Lust, “EDRA and the Philistine Plague”, 572-573). 그러면 עפלים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삼상 5-6장에 사용된 ‘언덕(עפלים)’, ‘취들(ועכברים)’, ‘독종(טחרים)’ 이 세 단어가 각각 설명적 와우로 연결되어 언덕이

5. 나가는 말

필자는 사무엘상 5-6장에 나타난 이슈들을 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무엘상 5:6, 9, 12와 6:4, 5의 명사 עפלים은 독한 종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분류되는 언덕으로 번역했다. 이러한 대안적 읽기는 기존의 ‘독한 종기’로 읽는 독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장소에 대한 사무엘상 5-6장의 강조점과 일치한다. 필자의 이러한 번역은 안전하게 전통적 읽기를 고수하는 기존의 번역과 다르지만 원문이 강조하는 바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했다.

여호와와 그의 궤는 블레셋의 거주지로 분류되는 도시의 언덕들이 아닌 들에 머물게 되고,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와 그의 궤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결국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 쥐에 대한 언급은 칠십인역이 말하듯이 실재적 쥐가 아니라 금 쥐(עכברי הזהב)로 ‘언덕(עפלים)’, ‘독종(טחרים)’과 각각 설명적 와우로 연결되어 동일 대상인 사무엘상 6:8, 15에 언급된 ‘금보물(כלי-זהב)’을 가리킨다.

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병한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칠십인역의 읽기는 칠십인역 나뉠대로의 해석이지 BHS 히브리 성경의 내용을 대체하는 대안적 본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칠십인역의 읽기는 BHS 본문의 원래 의도를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멈추고, 병을 낮게 하기 위해 돈으로 보상하길 원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임하여 백성들이 죽게 되는 ‘사망의 환난’이 생기게 되자(삼상 5:6, 9, 11), 블레셋 다섯 방백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조언에 따라 블레셋 방백의 다섯 도시의 수효대로 5개의 금보물을 보상물로 보낸다. 다윗이 여호와께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친 것과는 달리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 성읍에 임한 여호와와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이 그쳤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란 단어가 독종이란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칭하는 대체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칠십인역처럼 접속사를 없앨 필요가 없다. 이 단어는 지리적 정보를 의미하는 장소 개념으로 일차적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삼상 6장에서 이 단어와 다른 단어가 설명적 와우로 연결되어 그 의미에 있어서 대체, 확장 내지는 변화가 생겨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고, 이를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은 신 28:27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법궤 이야기, 명사 עֲפָלִים, 보상물(אַשָׁם), 블레셋, 쥐.

Ark Narrative, noun עֲפָלִים, compensation(אַשָׁם), Philistine, mouse.

(투고 일자: 2016년 7월 26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로날드 J. 윌리엄스,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김영옥 역, 서울: 그리심, 2012; Williams, Ronald J., *Hebrew Syntax: An Outline*,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 Auld, A. Graeme, *I & II Samuel: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Baker, David W., “Further Examples of the Waw Explicativum”, *VT* 30 (1980), 129-136.
- Bergen, Robert D., *1, 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1996.
- Brown, Francis, Driver, S. R., and Briggs, Charles A.,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 Campbell, Antony F., *1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3.
- Campbell, Antony F., *The Ark Narrative (1 Sam 4-6; 2 Sam 6): A Form-Critical and Traditio-Historical Study*, Missoula: Scholars’ Press, 1975.
- Campbell, Antony F., “Yahweh and the Ark: A Case Study in Narrative”, *JBL* 98 (1979), 31-43.
- Campbell, Antony F. and O’Brien, Mark A., *Unfolding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rigins, Upgrades, Present Tex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 Eynikel, Erik, “The Relation Between the Eli Narratives (1 Sam. 1-4) and the Ark Narrative (1 Sam. 1-6; 2 Sam. 6:1-19)”, Johannes C. de Moor and Harry F. van Rooy, eds., *Past, Present, Future: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nd the Prophets*, Leiden; Boston: Brill, 2000, 88-106.
- Geyer, J. B., “Mice and Rites in 1 Samuel V-Vi”, *VT* 31 (1981), 293-304.
- Harrison, R. K., “שָׁתַר”,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ume 3, Grand Rapids: Zondervan, 1997, 1295-1296.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oston: Brill, 2001.
- Lust, Johan, “EDRA and the Philistine Plague”, George J. Brooke and Barnabus Lindars, eds., *Septuagint, Scrolls and Cognate Writings*, Atlanta: Scholars Press, 1992, 569-597.
- McCarter, P. Kyle, *1 Samuel*,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 Milgrom, Jacob, *Studies in Cultic Theology and Terminology*, Leiden: Brill, 1983.

- Rost, Leonhard,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Michael D. Rutter and David M. Gunn, trans., Sheffield: Almond, 1982.
- Schenker, Adrian, "Once Again, the Expiatory Sacrifices", *JBL* 116 (1997), 697-719.
- Smelik, Klaas, "Eyewitness Accounts in the Books of Samuel? A Reappraisal", Klaas Smelik and Karolien Vermeulen, eds., *Approaches to Literary Readings of Ancient Jewish Writings*, Leiden; Boston: Brill, 2014, 79-97.
- Tsumura, David Toshio, "List and Narrative in I Samuel 6, 17-18a in the Light of Ugaritic Economic Texts", *ZAW* 113 (2001), 353-369.
- Tsumura, David Toshio, *The First Book of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7.
- Williams, Ronald J., *Hebrew Syntax: An Outline*,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 Wilton, Patrick, "More Cases of Waw Explicativum", *VT* 44 (1994), 125-128.

<Abstract>

The Meaning of the Noun עפלים in 1 Samuel 5-6

Changyop Lee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starts with the translation issue of a noun עפלים in 1 Samuel 5-6. The noun עפלים in 1 Samuel 5: 6, 9, and 12, and 6: 4-5 is not tumors but hills that are classified as residential areas. This alternative reading is consistent with the emphasis of 1 Samuel 5-6 on the place of the ark where it should be placed. The ark of the LORD stayed in the field of the Philistines for seven months.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decided to offer five golden mounds, that is, five golden mice as *'asham*. Mice are not real mice as the Septuagint mentions. The *waw* before the noun mice or tumors is not taken as the coordinate conjunction but as *waw explicative* in 1 Samuel 6: 4, 5, 11, and 18. The golden mice are used as synonymous to the golden mounds. The golden mice mean the golden figures in 1 Samuel 6:8 and 15.

The reading of the Septuagint that the mouse was a vehicle to carry the disease is not plausible, but we need to accept that the Septuagint can be consulted when we decipher the meanings of the BHS text. We can see that the Septuagint fails to deliver the original meaning and intent of the BHS 1 Samuel 5-6. The Philistines who wanted to stop the plague had to repair their fault by giving votive offerings called *'asham*. The five lords of the Philistines did not repeat Pharaoh's mistakes. After David had to give sacrifice to atone for his sin in 2 Samuel 24, the plague was averted from Israel but the author of 1 Samuel 5-6 does not tell explicitly whether the outbreak of plague in the cities of the Philistines stopped or not.